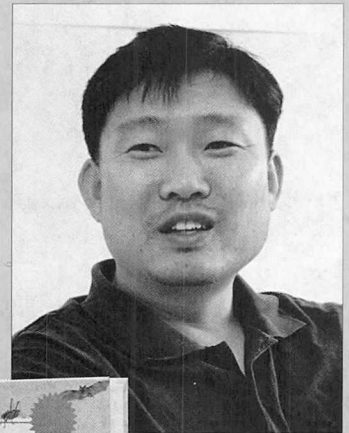


가는 붓끝으로 재현한 자연의 '날말사전'

《보리 어린이 식물도감》 외 펴낸 이태수씨

이태수씨가 세밀화로 그린 도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개인적인 이유에서다. 10여년 전 딸아이에게 그림책을 골라주려다 우리 자연을 대상으로 한 세밀화가 전문한 사실을 알고는 이 분야에 뛰어든 것이다. 이태수씨가 도감작업을 할 때 내세우는 제1원칙은 정확성이다. 그리고 일체 기계를 쓰지 않는다. 자연생태를 그릴 때는 작업과정도 마땅히 생태적이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다.



이태수씨



“도감은 자연의 ‘날말사전’ 이랄 수 있죠.”

맥이 끊어졌던 우리나라 세밀화를 어린이 그림책 분야에서 새롭게 ‘부활’ 시킨 이태수씨(41)는 ‘도감’의 가치를 이렇게 잘라 말한다. 그가 주도했던 ‘세밀화 전문 기획집단’인 ‘도토리’에서 만든 《보리 어린이 식물도감》《보리 어린이 동물도감》(이상 보리)이야말로 이 말에 딱 들어맞는 도감이다. 초등학교 전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동식물 320종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세밀화로 옮겨냈는데, 출간 당시부터 지금까지 반응이 좋다. 무엇보다 동물의 발톱과 털까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림은 이 책을 일 없이도 자꾸 들춰보게 만든다. 게다가 설명도 이야기하듯 하고 찾아보기도 쉽다. 아이들과 함께 봄나들이 나서거나 집 주변을 산책할 때 예구리에 끼고 다니며 놀이 삼아 눈에 띄는 동물이며 꽃 이름, 나무이름 찾기에 안성맞춤인 책이다.

감성은 배제하고 정확성에 주력해

“처음에는 가격도 낮춰 누구나 사 볼 수 있게 하고 크기도 주머니에 쏙 들어가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해야 하는 출판사로서는 그러기가 힘들더군요.”

이태수씨는 도감이야말로 개별 출판사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작업이라고 강조한다. 단기적인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한 나라 자연자원의 가장 기초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우리나라에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진 도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몇 해 전 33권짜

리 도감을 의욕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림을 보니 고라니인지 사슴인지, 늑대인지 곰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였다. 그는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300년 전쯤에 세밀화로 그린 도감이 나왔다고 아쉬워한다.

도감 작업을 하면서 이태수씨가 세운 가장 우선적인 원칙은 정확성이다. 일반 그림책과는 달리 도감은 개체의 정확성이 생명이므로 작가의 감성은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성으로 따지자면 사진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진은 초점의 위치, 배경, 광선 등에 따라 대상이 왜곡될 수도 있다. 우리가 자연을 보는 눈,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본 사물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 세밀화의 장점이다.

“세상에 살아 있는 그 어떤 존재도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자연을 그리면서 어떻게 기계를 갖다댈 수 있겠습니까?”

기계는 대상을 획일화한다는 이유로 그는 자신뿐 아니라 도감 작업에 참여한 다른 화가들에게도 에어브러쉬 같은 기계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자연생태를 그릴 때는 작업과정도 생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을 쪼개고 해부하는 그림도 그는 거부한다. 보이는 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아이들에게 해부학적인 지식이 뭐 그리 많이 필요하겠느냐는 말이다.

어린 딸아이에게 그림책을 골라주려다 좋은 그림, 특히 우리 자연, 우리 삶의 기초자료가 될 만한 세밀화가 전문한 것이 안타까워 직접 세밀화

를 그리기 시작한 지 10년. <보리 아기 그림책> 시리즈와 <계절 그림책> 시리즈, 동·식물 도감 등 그

가 그리고 제작한 책들은 이제 우리나라 세밀화의 ‘역사’가 됐다. 그가 가지고 있는 원화만도 200여점. 지난해 <계절 그림책> 시리즈 완간을 기념해 원화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자연, 마르지 않는 이야기의 샘

그에게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자연의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것은 싫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냥 다 좋다. 그러니 자연은 그에게 하루도 같지 않은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자꾸자꾸 들려준다. 그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것. 이것이 그가 소수의 호사취미로 전락한 ‘전시회 미술’을 뺀 채치고 출판미술에 관심을 돌린 이유거니와, 그가 평생 할 일이기도 하다.

“요사이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개체그림보다는 주변과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야기를 담은 자연이랄까요.”

기회만 닿는다면 약초 도감과, 섬이나 습지 등 특정한 지역의 자연생태를 속속들이 담은 도감을 그리고 싶다는 그는, 요즘 《소년 조선일보》에 격주간으로 도시 속 자연이야기를 담은 <자연관찰 그림일기>를 연재하고 있다. - 박남정(자유기고가)